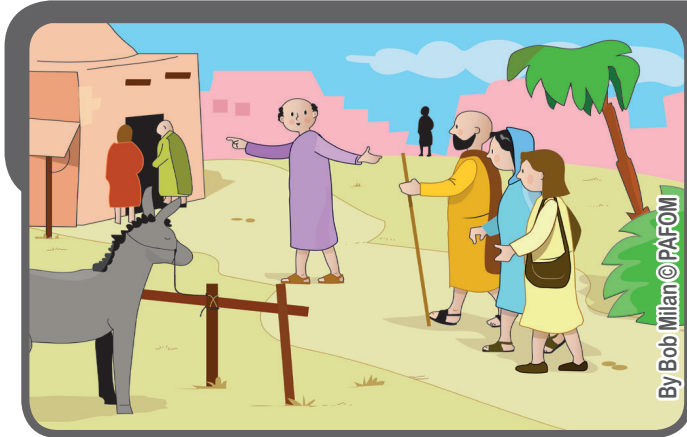




예수님의 형제, 차매, 어머니가 되는 것.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마태오 12장 50절)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머니와 친척들이 밖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탈리아에 사는 노에미의 경험담이에요

바올라는 친구 노에미를 찾아가서, 왕자와 공주 놀이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공주 할래!”라고 말했어요.



노에미도 공주를 하고 싶었지만, 바올라를 사랑하기 위해 왕자의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재미있게 놀이를 하고 서로 헤어질 때 바올라는 노에미가 양보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